



S T R  K E

DIA

획 : Stroke

2025. 03. 13 - 04. 12

도널드 마티니

권오봉

박선기

김정환

다가오는 전시 "획(Stroke)"은 빠르고 표현적인 움직임의 본질을 포착하는 개념으로 붓의 물리적 동작과 제스처의 에너지를 포괄하며, 강한 바람의 힘이나 손의 빠른 움직임과 같이 예술 작품 하나하나에 담긴 힘과 유동성을 상징한다.

붓의 사용이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은 동양 문화에서 "획"이라는 단어는 매우 깊고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마음과 손이 하나가 되어 붓으로 그려낸 선이나 흔적을 뜻하며, 역사적으로 "획을 긋다"라는 표현은 경계를 명확히 하거나 중요한 순간을 표시하는 은유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중견 작가 4명이 이 주제를 해석하고 체현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각 작가는 고유의 관점을 통해 움직임과 붓의 선이 지닌 눈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을 표현할 것이다. 또한 관람객은 통제된 기법과 예술적 표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어우러진 몰입형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관람객들이 "획"의 유동적이고 자발적인 본질을 체험하고, 의도적인 창작과 예술적 자유의 상호작용을 반추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히 이번 전시는 평소 보기 드문 중견 작가들의 독창적 예술 세계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획이라는 주제 아래, 도널드 마티니, 권오봉, 박선기, 김정환 작가가 오랜 시간 쌓아온 예술 언어와 창작 세계를 선보인다.

창작의 과정에서 획은 다층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하나의 점이나 선 속에 작가의 삶과 깊은 탐구가 깃들여 있으며, 이는 단순한 표면의 흔적을 넘어 생명과도 같은 표현으로 탄생한다. 형태나 감정의 은유를 넘어서는 획이, 하나의 독립적이고 의미 있는 존재로 구현된다.



Donald Martiny 도널드 마티니

b.1953

lives and works in Ivoryton, CT

“내 작업은 붓과 물질을 넘어서, 형태와 공간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실험이다. 화면을 넘어서 물리적 공간을 창출하며, 회화의 전통적 경계를 허물고, 동적인 붓질을 통해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제공한다.”

도널드 마티니는 ‘현재’라는 시간성을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들어진 몸짓, 즉 순간의 제스처로부터 포착된 강렬한 힘에 대해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적 행위로서, 전통적인 사각의 캔버스 틀을 넘어서, 작품이 물리적으로 공간과 접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의한다. 마티니는 작품을 갤러리 벽면에 직관적으로 적용한 듯한 거대한 붓놀림의 부조 작품을 선보인다. 이 작품들은 단순히 화면에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내면의 충동과 감정을 물리적으로 발산하는 형식으로, 대형 액션 페인팅을 연상시키며, 그 강렬한 동작이 캔버스라는 평면을 넘어서는 체험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람자는 작품과의 상호작용에서 예술의 본질적인 의미를 성찰하며, 예술과 시간,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는다.

마티니의 작품은 관람자에게 단순히 작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품과의 감정적 교류를 시도하게끔 유도한다. 거대한 붓놀림이 만들어내는 역동성은 작품과 관람객 사이의 공간을 활성화시켜, 예술적 경험을 더욱 풍부하고 심층적으로 만든다. 그가 만든 순간적이고 본능적인 작품들은 관람자에게 자신도 모르게 그 안으로 끌려들어가게 하며, 관람자는 작품과의 유대감을 느끼고, 그 순간이 마치 영원히 지속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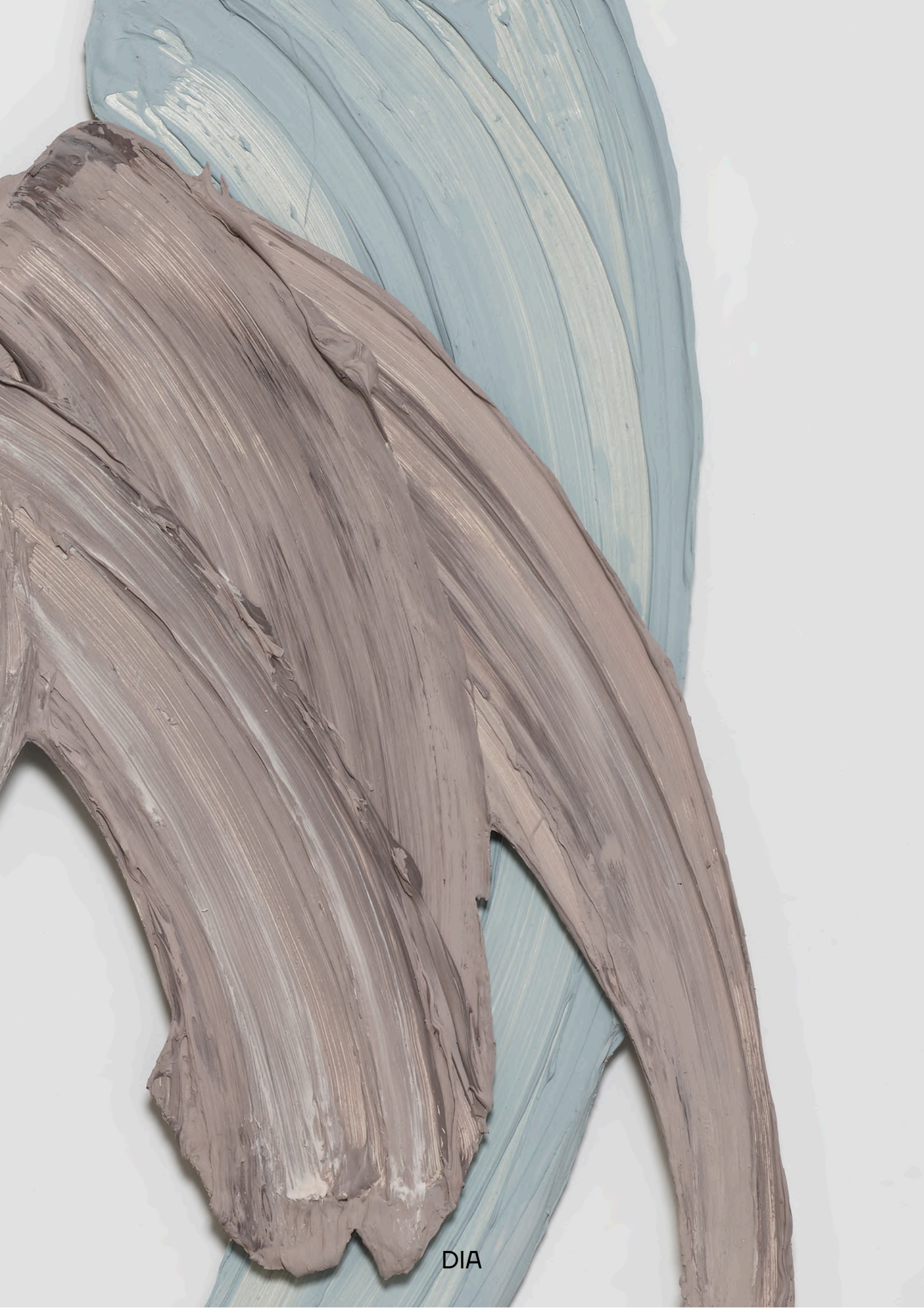
도널드 마티니는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아트 스튜던트 리그, 뉴욕 대학교와 펜실베이니아 아카데미에서 수학하였다. 작가는 런던 코털드 미술대학교, 콘월 팔머스 미술관, 노스 캐롤라이나 미술관, 인디애나 FWMoA, 포트 웨인, 알든 B. 다운 미술관, 카메론 미술관 등 해외 우수한 미술관 및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미국 피닉스 미술관, 크로커 미술관, 에이몬 카터 미국 미술관, 툴레인 대학교 뉴컴 미술관, FWMoA, 포트 웨인, 람보르기니 박물관, 뉴욕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리고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등에 소장되어 있다.



도널드 마티니

Hephaestus, 2025
알루미늄에 폴리머 및 안료
152.4 x 106.7 cm

DIA



DIA



도널드 마티니

Iris, 2025

알루미늄에 폴리머 및 안료

101.6 x 152.4 cm

DIA



도널드 마티니

Demeter, 2025
알루미늄에 폴리머 및 안료
114.3 x 122 cm

DIA



도널드 마티니

Selene, 2025

알루미늄에 폴리머 및 안료

213.3 x 190.5 cm

DIA



도널드 마티니

Tellus, 2025
알루미늄에 폴리머 및 안료
76.2 x 139.7 cm

DIA



도널드 마티니

Zephyrus, 2025

알루미늄에 폴리머 및 안료

81.2 x 111.7 cm

DIA



DIA

A black and white portrait of Kwon O Bong, a middle-aged man with short hair, looking slightly to the right. He is wearing a light-colored shirt. The background is a light, textured surface with some faint, dark, curved lines.

Kwon O Bong 권오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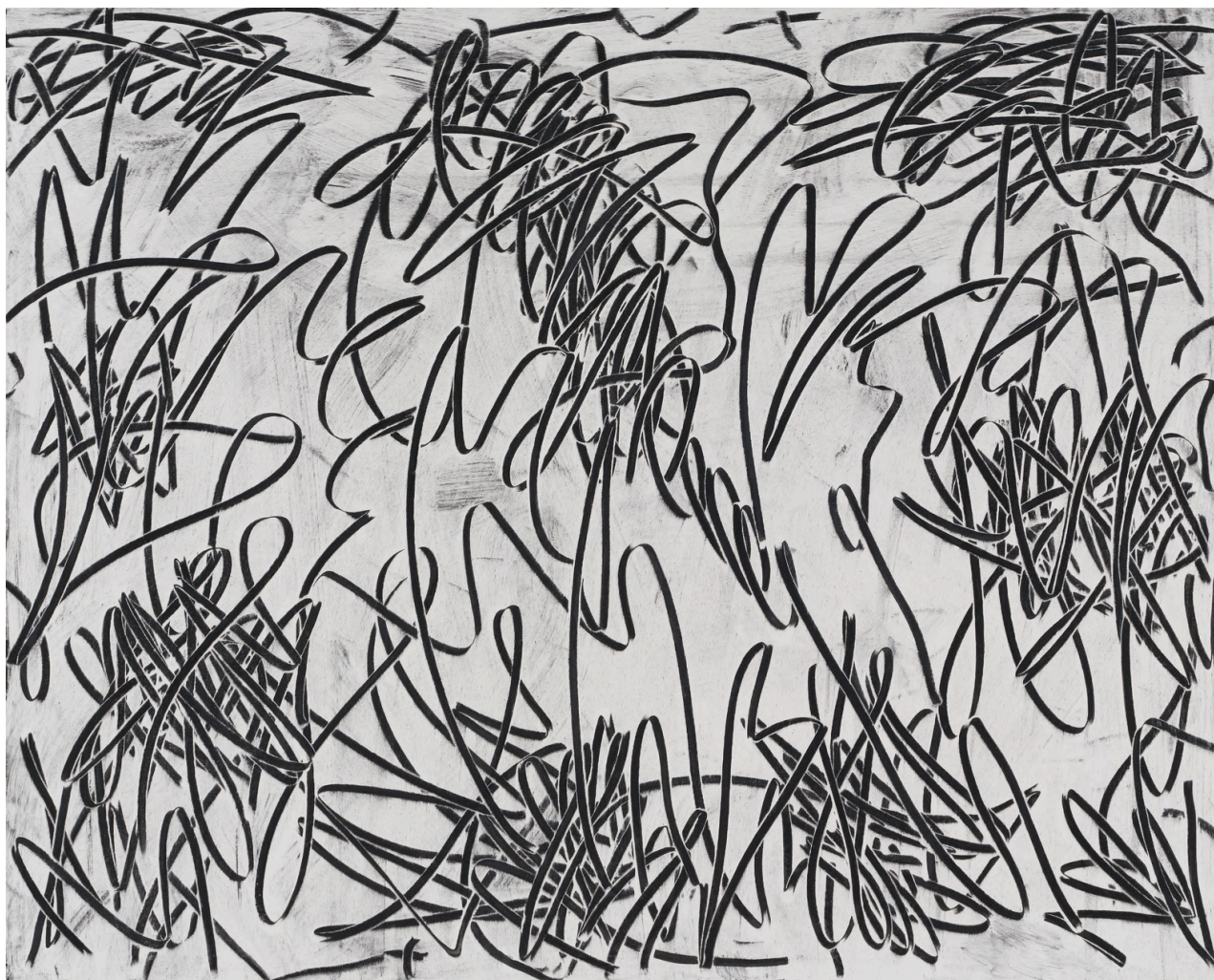
b.1954
lives and works in Gyeongsan

“나는 ‘선’을 통해 회화의 본질을 탐구한다. 내 작업은 단순한 미적 형상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내면을 탐구하는 여정이다. 나는 회화라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여, 창작 과정을 통해 삶의 본질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권오봉은 자유로운 선과 역동적인 붓질을 통해 회화의 본질을 탐구하며,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독창적인 마티에르로 자신만의 예술적 언어를 구축해왔다. 그의 작업은 직관적인 행위를 기반으로 하며, 이를 통해 독특하고도 강렬한 선의 조형 세계를 펼쳐보인다.

그의 작품은 회화의 중심 요소인 ‘선(line)’에 경계를 두지 않고, 선의 고유한 특성을 살려 규칙과 불규칙이 교차하는 추상적 화면을 형성한다. 이러한 작업 방식은 자유로운 선과 강렬한 붓질의 필력을 바탕으로 ”선의 회화“ 혹은 ”낙서의 회화“로 불리며 주목받고 있다. 작가는 형식적 제약이나 정신적 의미를 넘어, 그리기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무의식적인 창작 과정을 통해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서사를 제시한다. 나무, 갈퀴, 못과 같은 일상적 도구를 활용해 자유롭고 불규칙적인 율동감을 표현하며, 재료의 특성과 작업 속도에 따라 표면의 질감과 여백을 즉흥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를 통해 그의 작품은 역동적 에너지와 깊은 감흥을 동시에 전달한다.

권오봉은 대구출생으로 계명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윤갤러리(1986), 인공갤러리(1989, 1990, 1992), 우손갤러리(2005), 리안 갤러리(2009), 인당뮤지엄(2018), 대구미술관(2024) 등 현재까지 19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여러 기관과 화랑에서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하였다. 2023년에는 제24회 이인성미술상을 수상하며 그의 예술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국립현대미술관, 대구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인당뮤지엄뿐만 아니라 주요 사립 미술관 및 기관에서도 소장되었다.



권오봉

무제, 2023
캔버스에 아크릴
165 x 133 cm
Framed

DIA



DIA



권오봉

무제, 2023
캔버스에 아크릴
100 x 135 cm

Fra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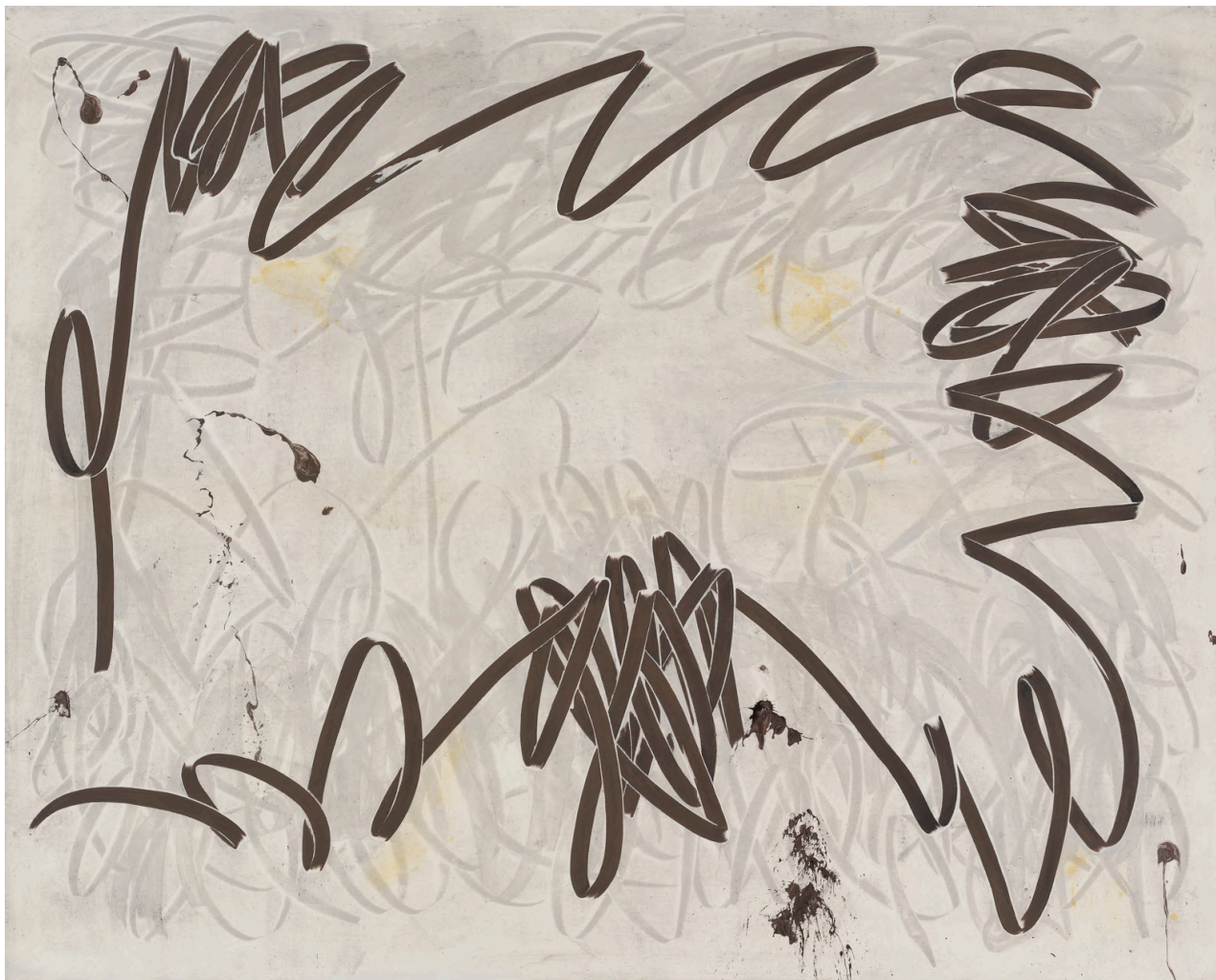
DIA



권오봉

무제, 2024
캔버스에 아크릴
100 x 135 cm
Fram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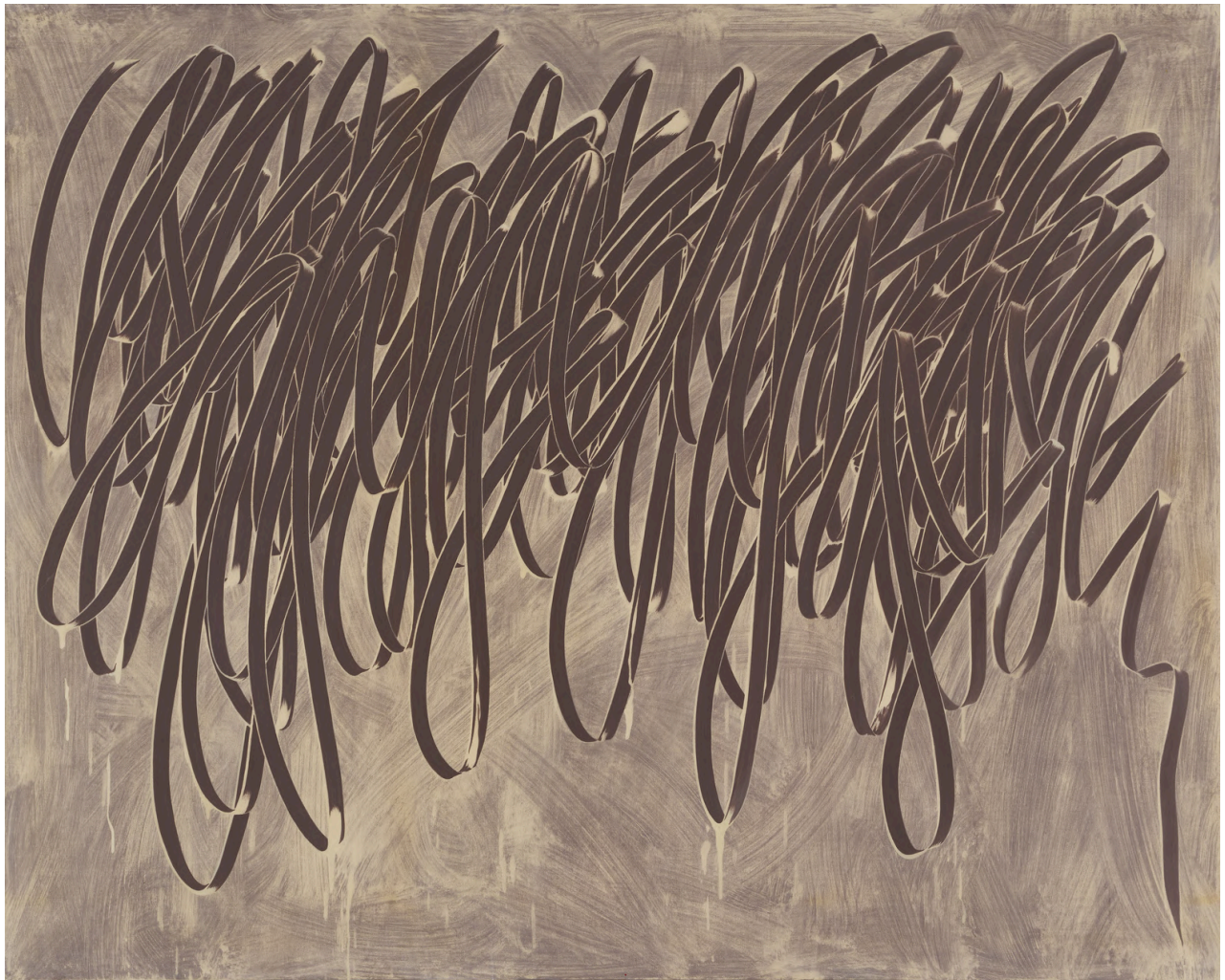
DIA



권오봉

무제, 2009
캔버스에 아크릴
166 x 134 cm
Framed

DIA



권오봉

무제, 2010
캔버스에 아크릴
166 x 134 cm
Framed

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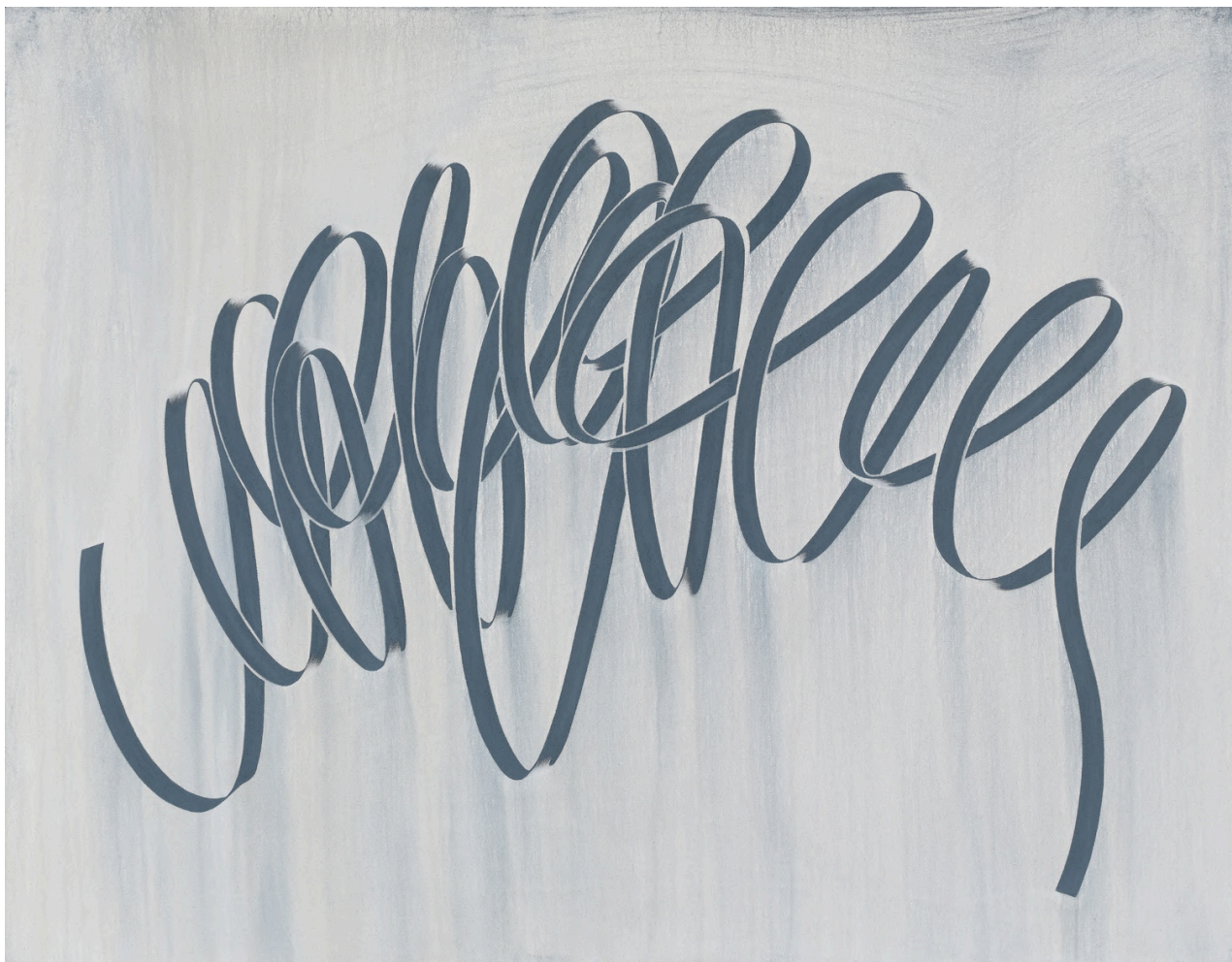


권오봉

무제, 2024
캔버스에 아크릴
105 x 135 cm
Framed

DIA





권오봉

무제, 2023
캔버스에 아크릴
117 x 91.5 cm

DIA



권오봉

무제, 2023
캔버스에 아크릴
117 x 91.5 cm

DIA



권오봉

무제, 2023
캔버스에 아크릴
91 x 73 cm

DIA



권오봉

무제, 2023
캔버스에 아크릴
91 x 73 cm

DIA



Bahk Seon Ghi 박선기

b.1966

lives and works in Ansong-si

“ 내 작품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시점에 따라 변하는 입체적 형태를 통해 물질을 넘어서는 의미를 전달하려 한다. 작품을 통해 인간과 자연, 공간과 감정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새로운 시각적 유희와 철학적 대화를 나누고 싶다.”

박선기는 원근법을 기반으로 숯, 아크릴 비즈, 구슬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여 입체적인 조각을 만들며 인간의 시지각을 탐구한다. 그의 작품은 인간의 감성과 시각에서 출발한다. 자연과 인간이 가진 문화를 접목하고자 선택한 숯은 그의 대표 재료 중 하나이다. 작가는 숯이라는 재료가 가진 물성이 모여 만들어내는 형태를 선보이며, 공중에 띄우는 방법으로 작품을 공간에 직접 개입시켜 공간과 상호작용하도록 만든다.

또한 관람자의 시점에 따라 작품의 형태가 변화하는 시각적 체험을 가능하게 한다. 작가는 단순히 물질로 재현한다는 전통적인 조각 개념을 탈피하여, 슬라이스 기법의 부조 작품과 대형 설치 작품들을 통해 조각에서 경험하지 못한 시각적 유희를 선사하며, 철학적이고 시각적인 입체 세계를 다양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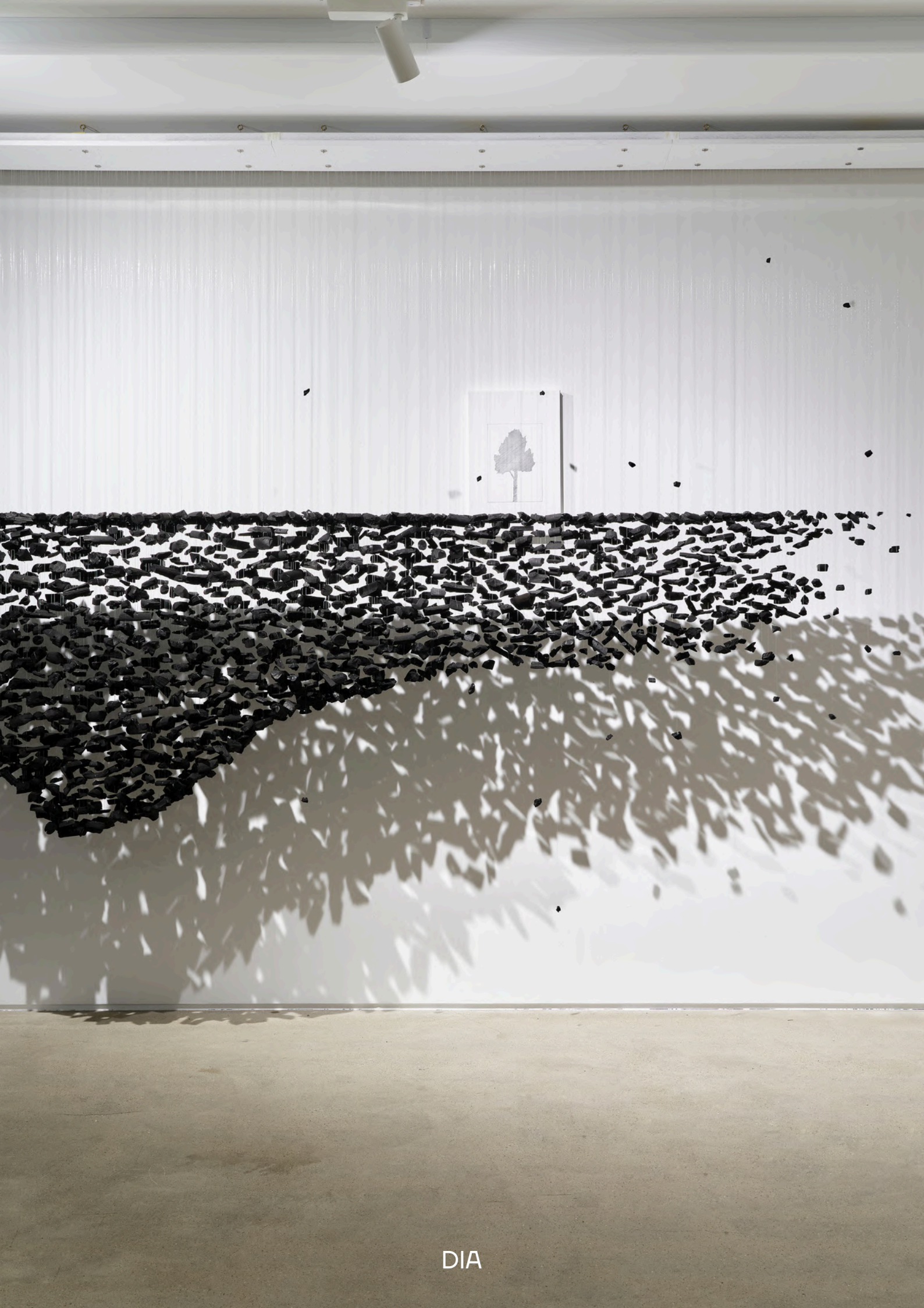
박선기는 중앙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 밀라노 국립미술원에서 유학하였다. 1994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서울, 밀라노, 베를린, 리스본, LA, 마이애미, 주리히, 베이징, 타이페이, 등 각국의 도시에서 30여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90년대 중반부터 유럽에서 활동하며 베를린 제21회 “Rethinking: Space, Time, Architecture” 전과 이스라엘 Haifa 현대미술관에서 제2회 하이파 국제 Installation Triennale, 상해 조각 비엔날레 “City Paradise”, Arte povera의 Michelangelo Pistoletto가 주관하는 이탈리아 Biella 국제위커샵 ‘Passaggi a Nord-Ovest’, 프랑스 물랭에서 갤러리 Continua의 기획전 “SPHERES 8“, 모스크바 현대 미술 전, “Korean Eye” 런던 Saatchi Gallery 등 세계 각국에서 심포지움과 아트페어, 그룹전에 참여 하였다. 2008년 김종영 조각상을 수상하고 “대고려” 국립중앙박물관, “반복과 차이” 부산시립미술관, “형태의 본질” 뮤지엄산, DDP “ESPRIT DIOR” 등 수많은 미술관과 화랑에서 전시하였다. Swire Company 홍콩, 루이비통 파운데이션, 인천공항, Jing’An Sculpture Park 상해, Oká Foundation 파리, 홍콩 Time Square, 삼성전자, FIAT Group 토리노, 김종영미술관, 호텔 신라, PKB Private AG은행 취리히, 롯데 시그니엘, 김포공항, 메르세데스 벤츠, TROIKA LA, 현대 카드, 셀트리온 등 수많은 다국적 기업과 미술관에 그의 작품이 소장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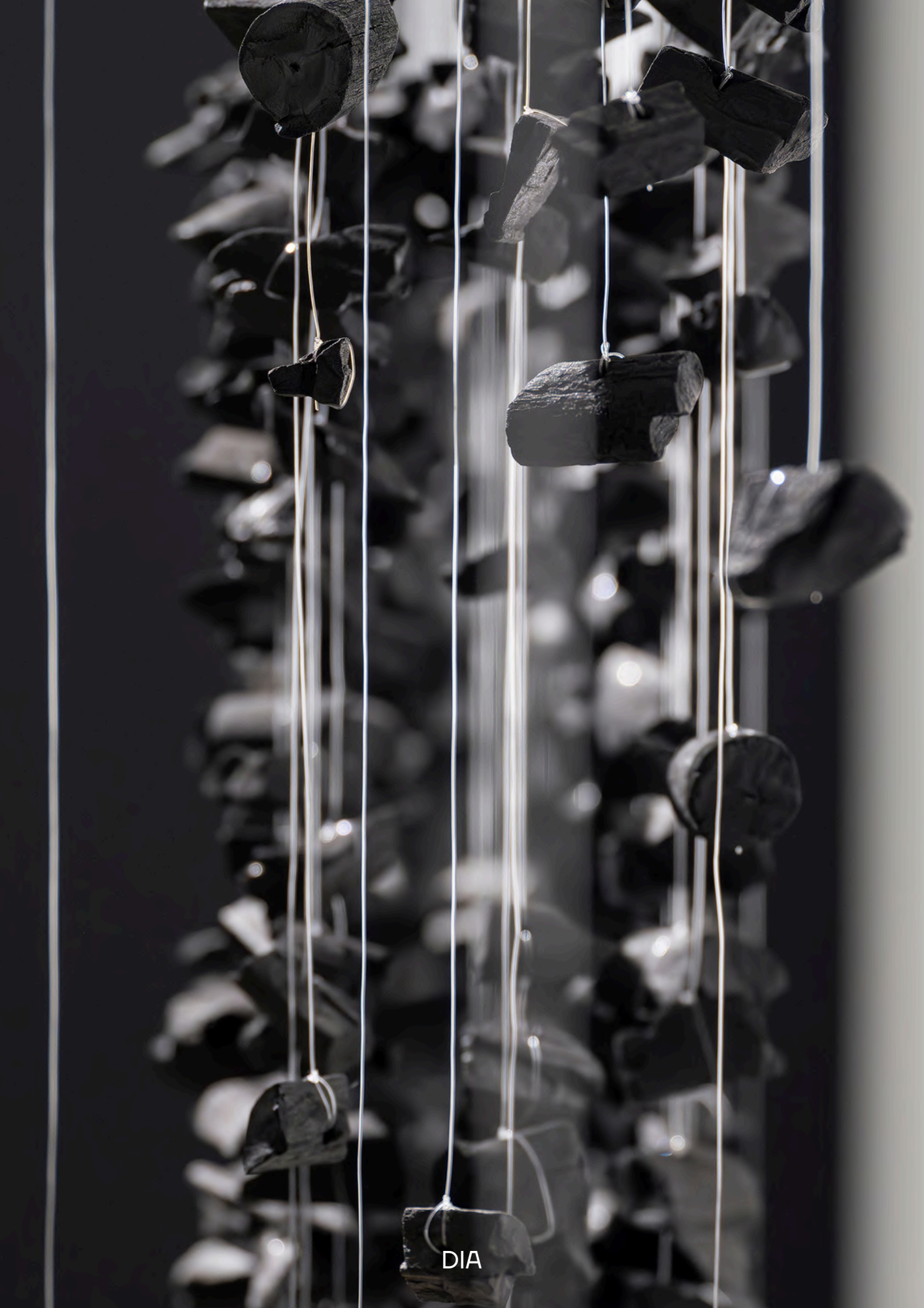
박선기

조합체 250203, 2025
숯, 나일론 실, 캔버스에 연필 등
360(W)x25(D)x270(H)cm

DIA



DIA



DIA



Kim Jeong Hwan 김정환

b.1969
lives and works in Seoul

“ 검은색 이미지가 침묵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침묵을 표현하는 것은 흰색의 여백이다. 내 작품에 있어 흰색은 이미지의 밑바탕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될 공간으로 작용한다.”

김정환의 작품은 침묵과 사유를 중심으로 한 검정색의 물질성을 탐구한다. 그는 서예와 전각을 바탕으로, 먹물과 돌가루를 사용하여 그림과 조각의 경계를 허물며, 화면에 검정색이 차지하는 물리적 공간과 그로 인해 남겨진 여백 사이의 상호작용을 탐구한다. 그의 작업은 검정색의 강렬한 물질감과 그 안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번짐, 얼룩 등을 통해 비가시적인 세계를 가시화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검정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라, 빛을 흡수하고, 고요함과 긴장을 내포한 존재로서, 화면 속에서 기운과 움직임의 흔적을 남긴다.

그의 작품은 칠해진 부분과 의도적으로 남겨진 부분이 교차하며, 이 두 요소 간의 길항 관계를 통해 시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김정환은 단순히 무엇인가를 표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색과 여백을 분할하여 의미 있는 구성을 만들어낸다. 또한, 그가 사용하는 재료는 단순히 회화적인 요소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더듬고 싶은 촉각적인 질감을 형성하고, 빛에 반응하는 물질적 특성을 통해 관람자에게 다층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묵음’이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작품은 언어와 그림, 문자가 어떻게 서로 교차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지에 대한 깊은 탐구를 보여준다.

김정환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을 졸업한 후 오포미술관(2024), 갤러리MHK(2024), 갤러리 기타노자카(2018), 백악미술관(2016), 한전아트센터 갤러리(2014) 등에서 12번의 개인전을 선보였으며, 그의 작품은 대유미디어그룹, 아주대학교 다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라마다호텔 남대문, KSD 나눔재단, 전북대학교 달관미술관(중국악양),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김대중 재단, 이레미디어 등에 소장되어 있다.



김정환

묵음 25-01-06, 2025

린넨 위에 아크릴, 규사 혼합

112.1 x 145.5 cm

DIA



DIA



김정환

묵음 25-02-07, 2025

린넨 위에 아크릴, 규사 혼합

117 x 91 cm

DIA



김정환

묵음 25-02-07, 2025
린넨 위에 아크릴, 규사 혼합
117 x 91 cm

DIA



김정환

묵음 19-11-21, 2019
캔버스 위에 한지, 먹, 규사 혼합
146 x 112 cm

D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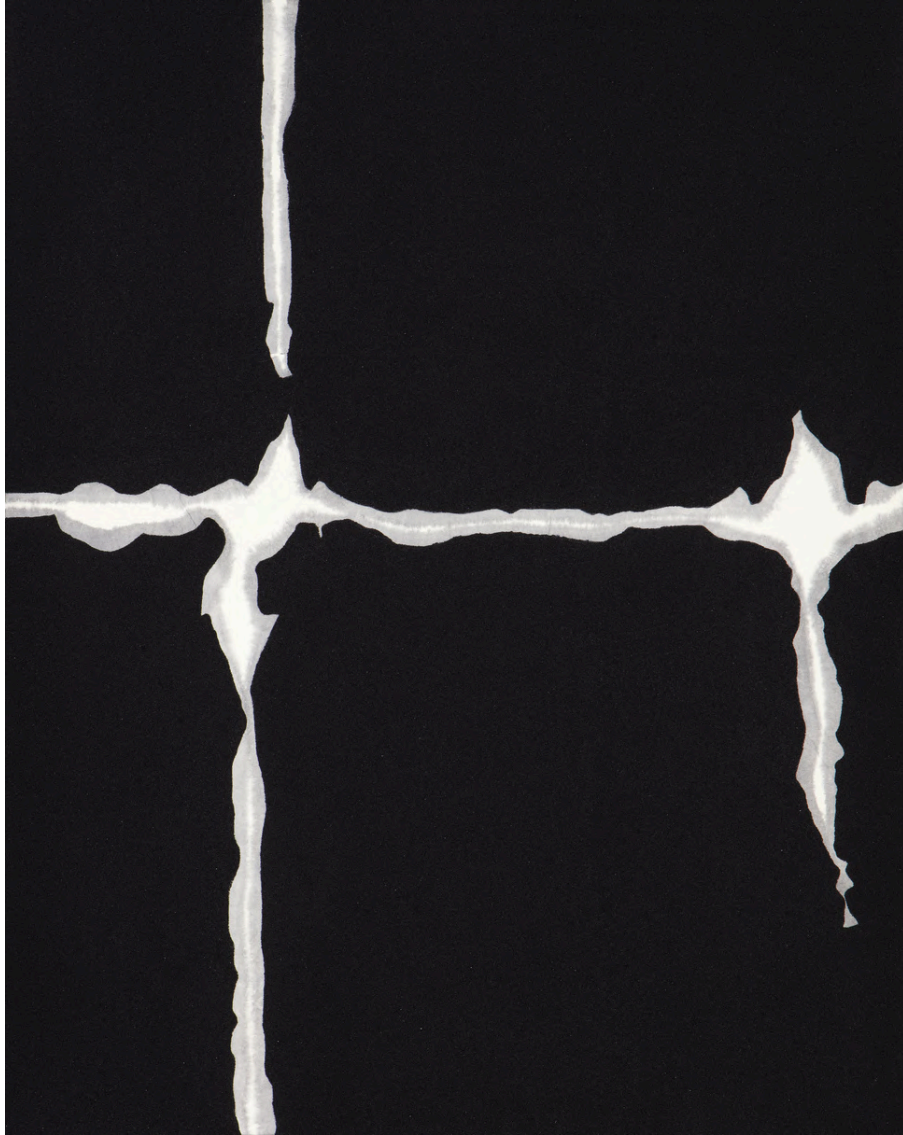
김정환

묵음 24-02-16, 2024

캔버스 위에 한지, 먹, 규사 혼합

91 x 72.5 cm

DIA



김정환

묵음 24-02-20, 2024

캔버스 위에 한지, 먹, 규사 혼합

91 x 72.5 cm

DIA



김정환

묵음 24-12-14, 2024
린넨 위에 아크릴, 규사 혼합
100 x 80 cm

DIA



김정환

묵음 24-12-07, 2024

린넨 위에 아크릴, 규사 혼합

117 x 91 cm

DIA

Discover Inspiring Artistry

2F, 37 Yulgok-ro 1-gil, Jongno-gu, Seoul, Korea 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7, 2층 디아컨템포러리

☎ 02 2235 2822

@ info@diacontemporary.com

🌐 diacontemporary.com

📷 dia.contemporary